



맨리헨(Männlichen) 봄맞이 알프스 축제.

알프스에 느끼막하게 찾아온 봄 축제

봄맞이 전통 알프스 페스티벌

융프라우 배경으로 요들송과 알프호른 연주 펼쳐져

스위스 민속 의상과 깃발 던지기도 구경할 수 있어

2024 년 6 월 23 일

융프라우요흐(Jungfrau) 행 기차가 출발하는 마을로 유명한 그린델발트(Grindelwald)에는 맨리헨(Männlichen)이라는 봉우리가 있다. 이곳의 산정 레스토랑에서는 매년 6 월, 느끼막이 봄을 맞이하는 봄맞이 알프스 축제가 펼쳐진다.

들판에는 야생화가 지천이고, 만년설이 새하얀 알프스 봉우리가 그 배경을 장식한다. 전통 아코디언 연주에 맞춰 발을 구르는 사람들의 표정은 더없이 해맑다.

전통과 민속을 중시하는 이 지역 사람들은 매년, 6 월에 열리는 봄맞이 알프스 축제를 개최하여 전통 민속 복장을 입고 춤을 추며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 부른다. 특히 요들링 듀엣과 알프호른 트리오가 축제의 하이라이트다. 이 축제에서는 유명한 스위스 깃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구경할 수 있다.

맨리헨은 그린델발트에서 곤돌라로 올라갈 수 있으며, 이 구간이 유럽 최장의 곤돌라로 유명하다. 약 30 분이 소요된다.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린델발트의 초록 들판과 유명한 아이거(Eiger), 윈히(Mönch), 융프라우(Jungfrau)를 가까이 감상할 수 있다.

축제는 2024 년 6 월 23 일 일요일 오전 9 시 45 분부터 오후 2 시 30 분까지 맨리헨 레스토랑에서 열린다.

맨리헨 정보: www.maennlichen.ch

그린델발트 정보: www.grindelwald.ch